

예산·환경·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 ‘눈덩이’ 교통 시스템 혁신 시급

**긴급 점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 승용차 중심 도시 광주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2년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된 후 15년간 노선 불만, 건설방식 민원 제기,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 재검토, 재추진 등이 반복됐다. 이제 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 도시교통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일보는 광주의 현안으로 부상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긴급 점검한다.

버스 준공영제 막대한 예산 서비스는 기대수준 못 미쳐

광주가 최근 10년간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버스, 도시철도 등 공공(대중)교통이 아닌 승용차 중심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보조금, 도시철도 1호선 운영자금 등의 투입 예산 부담으로 공공교통에 대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공교통의 부실은 이용자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운영자가 쌓이는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승용차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꾸준히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시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승용차의 주행·주차에 대한 규제 역시 극히 미약해 승용차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 증가는 매년, 미세먼지 등 도시 대기오염을 초래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하는 것은 물론 도로 신규 개설 및 정비 등의 예산 투입, 교통 지정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인구는 정체기에 들어갔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무려 11만4000여대가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이 승용차였다. 2010년 51만8477대였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61만1280대로 60만대를 돌파한 후 지난해 63만3375대로 11만4898대(22.16%)가 늘었다. 2014년부터는 매년 2만대 이상이 증가, 매년 증가세가 더해지고 있다. 2010년 40만4556대였던 승용차는 2016년 51만8440대로 11만3884대가 더해졌다. 자동차 증가분의 99.1%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승용차의 급증과 공공교통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은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에도 잘 나타난다.

2010년 38.0%였던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2016년 34.7%로 3.3%p 감소한 반면 승용차의 수송분담율은 31.7%에서 40.7%로 9%p 높아졌다. 도시철도 1호선은 2.5%에서 고작 3.5%로 7년간 1.0%p의 변화를 보였을 뿐이다. 공공교통의 중심축이 되는 도시철도 1호선이 광주의 동서를 가로지르지만, 인구밀집 지역, 유동인구 다수지역, 중·고·대학 등에 미치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도시철도 1호선과 버스가 같은 구간에 중복 투입되는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승용차의 수와 이용의 증가는 도로의 신규 개설, 정비, 확장, 관련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708억3000여만원, 2016년 702억5000여만원, 2017년 668억2000여만원 등 3년간 도로 개설 등에만 투입한 예산은 207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시내버스, 철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도로 개설 등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혈세가 도로와 교통에 지나치게 배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뉴스초점 - 국민의당 내일 ‘바른정당과 중도통합’ 끝장토론

안철수 대표 ‘빅 텐트론’ 내세워 통합 드라이브

호남 의원들 ‘평화개혁연대’ 구성 강하게 맞서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 노선투쟁이 오는 21일 ‘끝장토론’을 기점으로 중대 고비를 맞을 예정이다. 어서 호남 민심은 물론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최근 ‘빅 텐트론’을 내세워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드라이브를 다시 걸자 호남 의원들이 ‘평화개혁연대’를 구성, 강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의 심층 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남 의원들은 안 대표의 행보가 사실상 시간끌기라면서 연명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및 통합 불가를 못을 박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연말을 기점으로 분열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양측은 19일에도 거센 설전을 주고받았다. 통합론에 반대하고 있는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골목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되나, 이마트가 되나”라고 통합론을 비판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최경환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호남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의 외연을 확장하면 호남은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호남을 바지저고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흑규명, 5·18 진상규명과 같은 국민적 열망에 충실한 개혁연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도 안 대표의 통합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를 모아가고 있다.

반면, 안 대표 측에서는 호남 중진들이 외연 확대 등 당의 미래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민주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호남 민심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 흐름이 강하다. 19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42%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선거연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9%로 ‘찬성 의견’ 37.4% 보다 많았다. 전남도 같은 기간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4%)에서 ‘연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3%로 ‘찬성’ 39.4%보다 많았다.

이런 가운데 호남 현역 의원들 가운데 안 대표의 연대 및 통합론을 찬성하는 의원은 많아야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추산이다. 이처럼 안 대표 측과 호남 의원들의 신뢰 구조가 무너지면서 일부에서는 ‘끝장토론’ 결과에 따라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내부의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이날 의원총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 및 통합과 관련, 전당원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안 대표 등 지도부 사퇴나 호남 중진들의 정치적 상처 등이 불가피, 얻는것 보다 잃는 것이 많아 정치적 합의를 통한 당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김치 맛 보세요”

19일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열린 광주시 서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치명인과의 김치담그기 수업’에 참가한 실습생(왼쪽)에게 김은숙 명인이 직접 김치를 먹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시험 교실 바뀐다... 22일 예비소집 참석해야

고사장 학교는 그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예비소집이 시험 전날인 22일 다시 실시된다. 지진 피해가 커 시험을 보기 어려운 호남지역 고사장을 제외하면

고사장(학교)은 기존에 정해진 곳과 같고 시험실(교실)은 바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연기 후속대책 종합 추진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험실 안에서 자리까지 바꿀지는 교육

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오는 22일 예비소집도 다시 시행한다. 다만, 포항은 고사장을 바꿀지를 21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하고 예비소집 일정도 별도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누리집에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대입전형이 끝나는

2018학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수능 당일인 23일 광주·전남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1~3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최저 -2~6도, 최고 7~1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또 대부분의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2017. 11. 06(월) - 26(일)

| 올해의 추천여행지 필리핀

PHILIPPINES

Philippine Airlines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무안공항출발 해외여행!

나는 더 편하게, 더 다양하게 떠난다!

하나 Pack (캐주얼) AVPF10_VJ1

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

비엠펙항공(VJ항공)

차맥아식제공, 무제한 생수서비스, 특식3회(오삼 불고기, 락비엠펙레스토랑, 노니보쌈정식)

하나 Pack (클래식) ARPF01_ZA1

VIP 급행비자 포함
앙코르왓 4일·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17년 12월 30일~18년 1월 27일(매주 수, 토)

스카이앙코르항공

앙코르룸 특특이 투어, 특식 3회 (쌈밥정식, 디너뷔페, 수제)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식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지정여행사] 지정여행사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이한 상황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충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패키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창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 포함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